

2025년 화성특례시 청소년골든벨 예상 문제

9월 14일(일) 오후 2시, 화성시청소년수련관(유앤아이센터)에서 열리는 2025년 화성특례시 청소년골든벨에 출제되는 예상 문제 내용입니다.

퀴즈대회의 변별력을 위해 예상 문제 외 화성시 관련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.
1등을 위한 공부가 아닌, 우리 동네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!

#화성시 일반상식 #정책

- 인구 및 특례시: 2025년 7월 기준 화성시 인구는 1,049,286명으로, 981,815명과 외국인 67,471명을 합쳐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도시입니다. 2025년 1월 1일부터 화성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, 수원, 용인, 고양,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가 되었습니다.
- 시 승격: 2001년에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되었습니다.
- 로컬푸드: 화성시 각 지역에는 반경 50km 이내에서 재배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.
- 시화: 목백일홍(배롱나무꽃)은 매끈한 껍질을 가졌고, 햅볕이 뜨거운 여름날 100일 동안 선명하고 화려한 붉은색 꽃을 피웁니다.
- 시목: 소나무는 용건릉, 용주사, 궁평리 등 여러 지역에 자라며 단단하고 잘 썩지 않습니다. 바닷가 소나무 숲은 바람을 막아주고, 나뭇결이 곱습니다.
- 시조: 도요새 중 알락꼬리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 갯벌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길고 휘어진 부리를 가졌으며,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- 로고: 화성시 로고는 주황색과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, 주황색은 ‘넘치는 활력과 에너지’와 ‘희망과 기쁨’을 상징합니다.
- 캐릭터: 공룡을 상징으로 만든 캐릭터 이름은 코리요입니다. 코리요에게는 아직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두 동생인 ‘알콩이’와 ‘달콩이’가 있습니다.
- 경계: 육지로는 6개 시와 접하고 있습니다. 동쪽은 용인시 남사면, 이동면, 남쪽은 오산시와 평택시의 진위면, 서탄면, 청북면, 포승면, 북쪽은 수원시, 안산시, 시흥시의 수암동과 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오산시와 수원시와는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.
- 시민안전보험: 화성시는 2019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및 거소 등록 등포 포함)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

#화성시의 섬

- 제부도: ‘모세의 기적’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섬입니다.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며, 현재는 포장공사를 통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합니다.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명소화 재생사업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.
- 제비꼬리길: 제부도를 일주하는 해안 산책로의 명칭입니다. 해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시설과 포토 포인트를 제공합니다.
- 해할현상: 제부도와 서신면 송교리 사이 2.3km의 물길이 하루 두 번씩 썰물 때 갈라지며 6시간 동안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입니다.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.
- 디자인 의자: 데크 길과 해안가에 서서의자, 등지의자, 흔들의자 등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, 이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상인 레드 닷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.
- 국화도: 서해바다의 꽃처럼 아름다운 섬으로, 조개껍데기인 조가비가 국화꽃을 닮아 이름이 지어졌습니다. 본섬인 국화도와 작은 섬인 도지섬, 매박섬(토끼섬)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
#화성시의 항구

- 전곡항: 지중해풍 풍경을 자랑하는 항구입니다. 매년 뱃놀이 축제가 열리고, 요트를 타고 누에섬, 입파도, 도리도, 국화도 등 주변 섬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. 전국 최초로 레저 어항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- 궁평항: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며, 2008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‘궁평’이라는 지명은 궁(왕실)에서 관리하던 평평한 땅(평)이 많아 유래되었습니다.
- 궁평 해송 숲: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시민들의 휴식처입니다. 최근 독특한 디자인의 시설인 ‘궁평 오솔(OSOL) 아트 파빌리온’이 설치되었습니다.

#화성시의 생태명소

- 화성 뿔공룡 화석: 전곡항에서 발견된 ‘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’ 골격 화석이 국내 최초의 공룡 골격 화석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.
- 코리요 캐릭터: 화성시에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를 모티브로 만든 애니메이션 공룡 캐릭터는 코리요입니다. 2014년 방영 당시 인기가 있었습니다.
- 알락꼬리마도요: 화성시의 상징 새입니다. 봄, 가을에 호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동 중 화성 갯벌에서 쉬어 가는 국제보호종입니다.
- 비봉습지공원: 시화호 수질 개선과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화성시와 안산시의 3개 하천 합류부에 조성된 인공습지입니다.
- 우리꽃 식물원: 우리나라 5대 명산의 식생대를 재현한 사계절 관과 한옥 형태의 유리온실인 백두대간관이 있습니다. 1,600여 종의 많은 토종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

- 공룡알 화석산지: 시화호 물막이 공사로 육지가 된 고정리 일대의 퇴적암층에서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공룡알 화석 20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. 탐방로 주변에는 통통마디, 칠면초 등 많은 염생 식물과 육지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.
- 우음도: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, 교과서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한 지질 명소입니다. 주로 선캄브리아시대에 형성된 변성암이 분포합니다.

#지명

- 궁평리: 옛날 궁(국가)에서 관리하던 땅이 많아 '궁평' 또는 '궁들'이라 불리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.
- 병점: '떡전거리'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, 예부터 삼남으로 통하는 길목에 떡을 파는 장수가 많았던 데서 유래했습니다.
- 국화도: 섬에서 많이 채취되는 조개껍데기(조가비)가 '국화꽃'을 닮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
- 삼천병마골: 수원에서 발안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고개로, 임진왜란 때 3천 명의 의병이 매복하여 왜병을 몰살시켰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.
- 능동: 고려 시대에 이곳에 아기능이 있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.
- 안녕리: 정조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긴 후 행차 시 이 마을에서 부왕이 편히 잠드시기를 빌었던 데서 유래된 '편안한 마을'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.
- 와우리: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불리게 되었습니다.
- 마산포: 구한말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장수 원세개가 상륙하고 흥선대원군이 배를 탔던 포구입니다.
- 손포: 작고 좁은 포구로, '손개'로 불립니다. 손씨가 많이 사는 갯벌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.
- 매향리: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곳입니다. 2005년 훈련장이 폐쇄되었고, 지금은 평화를 상징하는 **'매향리 평화역사관'**이 있습니다.
- 고온리(쿠니): 매향리의 옛 지명인 고온리를 잘못 발음하여 '쿠니 사격장'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.
- 동탄: <동국여도>에 표시된 동진면과 어탄면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'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여울'이라는 뜻입니다.

#화성시의 역사

- 남양부사 윤계순절비: 1668년 남양도호부 백성들이 병자호란 때 순절한 남양부사 윤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입니다. 비문은 최고의 학자 송시열이 지었고 글씨는 송준길이 썼습니다.
- 융릉: 조선 22대 정조의 아버지 **사도세자(장조)**와 그의 비 **헌경의황후(혜경궁 홍씨)**를 모신 왕릉입니다. 정조가 현재 위치로 옮기고 아름답게 조성했습니다.
- 건릉: 정조와 그의 비 효의선황후를 모신 왕릉으로,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.



- 용주사: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사찰입니다. 대웅보전 낙성식 전날 밤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어 '용주사'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
- 《부모은중경》: 용주사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주제로 한 《부모은중경》과 인연이 깊습니다. 이 책의 삽화는 정조가 총애하던 화가 김홍도가 그렸습니다.
- 화성 3.1운동 만세길: 총길이 31km로, 3.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.
- 당성: 화성시 서신면 구봉산에 위치한 사적 217호 삼국시대 산성입니다. 백제, 고구려, 신라 순으로 차지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.
- 남양성모성지: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때 많은 신자가 순교한 장소로, 한국교회 최초로 성모마리아의 순례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.
- 신빈 김씨 묘: 세종대왕의 후궁인 신빈 김씨의 묘로, 공노비에서 후궁이 되어 '조선판 신데렐라'라고도 불립니다.
- 봉림사: 신라시대 진덕여왕의 불심으로 고구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창건되었습니다. 극락전에는 보물 980호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습니다.
- 안곡서원: 조선시대 학문 연구와 선현 제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 지방학교입니다.
- 기로소: 조선시대 연로한 문신을 예우하기 위한 명예기구로, 현재 남양 풍화당이 유일하게 기로소로 남아있습니다.
- 제암리 3.1운동 순국기념관: 제암리와 고주리 일대에서 일본군 만행으로 죽임을 당한 주민들을 기리는 곳입니다. 23명의 주민이 교회에 갇혀 희생되었고, 고주리에서는 김홍열 일가족 6명이 살해당했습니다.
- 스코필드 박사: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캐나다 선교사입니다. 한국 이름은 '석호필'이며,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.
- 정조의 효심: 정조는 아버지 묘소의 송충이를 없애겠다며 송충이를 씹어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

#화성시의 인물

- 정도전: 남양부사 중 한 명으로, 조선의 기틀을 만든 설계자입니다.
- 허임: 화성시 사람으로 조선 시대 침술의 대가입니다. 뛰어난 의술로 신분 상승을 하고 남양부사로 임명되었습니다.
- 정순조: 남양도호부 선정비의 주인공으로, 남양부사로 재직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승지로 승진했습니다.
- 홍난파: 화성시에서 태어난 작곡가로, 본명은 홍영후입니다. 명곡으로는 '봉선화'가 있습니다.
- 남이 장군: 조선 세조 때의 무신으로, 역모에 몰려 처형되었습니다. 그의 묘는 화성시 비봉면에 있으며, 춘천 남이섬에도 가묘가 있습니다.



- 홍사용: 본관은 남양, 호는 노작입니다. 그의 호를 따서 화성시에 ‘노작로’라는 지명이 만들어졌습니다. 대표작은 「나는 왕이로소이다」입니다.
- 이정근: 1919년 3월 30일 발안 장날 만세 운동의 선두에 서서 독립 만세를 외치다 순국했습니다.
- 김규식: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로 파견되어, 제암리·고주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.
- 전동례 할머니: 제암리·고주리 사건의 참상을 목격하고 증언하여 23위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.
- 최루백: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고려 시대 효자입니다. 정몽주는 그를 ‘동방의 유종’이라 칭송했습니다.
- 조용필: 1950년 화성군 송산면에서 태어난 가수입니다. 대표곡으로는 〈돌아와요 부산항에〉, 〈서울 서울 서울〉 등이 있습니다.

#화성시의 지역자랑

- 화성을 대표하는 8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모아 우리는 ‘화성 8경’이라고 한다.

제1경 응건백설(隆健白雪) : 응건릉 주위에 빽빽한 노송에 백설이 덮힌 풍경

제2경 용주범종(龍珠梵鐘) : 용주사 경내의 범종

제3경 제부모세(濟扶모세) :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모세기적

제4경 궁평낙조(宮坪落照) : 궁평리 해수욕장에서 맞는 낙조의 아름다움

제5경 남양황라(南陽黃羅) : 남양간척지에 펼쳐지는 가을의 황금들판

제6경 입파홍암(立波紅岩) : 태고의 신비가 감추어진 입파도의 붉은 기암괴석

제7경 제암만세(堤岩萬歲) : 제암리 3.1운동 순국유적지

제8경 남양성지(南陽聖地) : 한국 교회 사상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 순례 성지로 선포된 곳

- 특산물: 우수한 품질의 포도가 대표 특산물이며, 추석 즈음에는 ‘화성송산포도축제’가 열립니다.
- 온천: 월문온천, 율암온천, 발안식염온천 등 여러 온천장이 있습니다.
- 나래울 화성시종합복지타운: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노인복지관 등을 하나로 통합한 복지시설입니다. 경기도 최초로 베리어 프리(Barrier Free) 1급 인증을 받았습니다.
- 반석산 에코센터: 반석산에 위치하며, 생태 체험 및 교육을 운영합니다.
- 화성종합경기타운: 국제 수준의 시설을 갖춘 주경기장, 보조경기장, 실내체육관으로 이루어진 복합 공간입니다.
- 화성시 팔탄면에는 지하 700미터 암반에서 솟아나는 천연수가 있다. 이곳은 천연 온천수로 소문 났으며, 월문온천, 율암온천부터 6500만 년 동안 지하에서 숙성된 온천수를 자랑하는 곳으로 온천 여행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화성 온천단지가 있습니다.



#축제

- 화성송산포도축제: 매년 추석 즈음에 열리는 축제로, 송산 포도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.
- 뱃놀이 축제: 전곡항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입니다.

#화성시의 지명

- 송산그린시티에 위치한 새솔동의 이름의 유래는 새로운 소나무처럼 항상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다. 새솔동의 지명은 화성문화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여되었다.
- 마산포는 말이 건너왔다, 산세가 말을 닮았다 또는 마루개-으뜸을 뜻하는 마루-가 변한 것이다라는 설이 있다.
- 전곡항은 지중해풍 엽서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푸른 바다와 하늘, 하얀 요트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근처의 섬까지 둘러볼 수 있다. 전곡항에서는 매년 뱃놀이 축제도 열리고 있다.
- ‘병점’은 떡전 거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, 예부터 삼남(三南)으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쉬었다 가는 행인들이 많았고 이들을 상대로 떡을 파는 떡장수들이 많아 마을을 ‘떡전거리’라고 불렀다고 한다.

#문화, 유적, 관광

- 청금록: 남양향교 소속 유생들의 학생기록부로,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.
- 마을 의례: 화성 지역에는 127개의 마을 의례가 전승되었으며, 그중 30~40개가 여전히 계승되고 있습니다.
- 남양향교의 의례: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석전대제(=석전제)가 있습니다.
- 반송동 행장골유적: 삼국시대(백제)의 탄묘(숯을 굽던 시설)가 발견되었습니다.
- 청계중앙공원 문화재마당: 삼한시대~삼국시대 토기가마, 고구려 굴식 돌방무덤 등 다양한 시기의 유적을 옮겨 복원해 두었습니다.
- 남양도호부 관아: 오늘날의 시청과 같은 곳으로, 수령의 가족이 거주하던 공간인 내아가 남아있습니다.
- 남양풍화당: 원래 남양도호부의 내아 건물이었으나, 일제강점기 때 주민들이 사들여 보존하면서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. 1853년 남양도호부 양반들이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만든 모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.
- 만의사: 동탄 무봉산에 있는 절로, 서산대사가 한때 수도했다고 합니다.
- 용주사 범종: 고려시대의 국보 제120호입니다.
- 용주사 대웅보전: 보물 제1942호로 지정되었으며, 정조가 현판 글씨를 썼습니다.
- 매향리 평화역사관: 매향리 폭격 훈련장 자리에 세워진 전시관입니다.
- 발안 만세시장: 1919년 3월 30일 장날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.
- 화성 3.1만세길 방문자센터: 3.1만세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.
- 궁평항 피싱피어: 바다 위에 나무데크를 길게 깔아놓은 바다 낚시터입니다.

